

-고

나열·순서 — 절 연결

두 문장을 하나로 잇습니다. 모음 규칙 없이 어간에 바로 붙으며, 이유나 조건의 뜻은 없고 ‘그리고 나서’ 또는 ‘그리고 또’의 뜻만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와 형용사	-고	먹다 → 먹고
ㄴ 어간은 ㄴ 유 지	-고	만들다 → 만들고
이다	-이고	학생이고
시제는 마지막 절에	어간 + 고	먹고 갔어요
별개의 과거 사건	-았/었고	먹었고 잤어요
명사 연결에는	하고, 와/과	빵하고 우유 — 빵이고 (×)

■ 언제 쓰나요

-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. 첫째, 사실을 순서와 관계없이 나열합니다: 동생은 키가 크고 저는 작아요. 둘째, 동작을 순서대로 연결: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.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지는 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지 동작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시제는 보통 마지막절에만 붙입니다. 밥을 먹고 갔어요는 먹고에 시제가 없어 보여도 문장 전체가 과거입니다. 두 절 모두에 었을 넣을 수도 있지만, 그러면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표시됩니다.

두 절의 주어가 달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-고는 -아서/어서와 다릅니다. 또 -고는 절만 연결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두 명사를 이으려면 다음을 써야 합니다: 하고 또는 와/과.

■ 예문

- 1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요.
- 2 이 식당은 싸고 맛있어요.
- 3 형은 회사원이고 저는 학생이에요.
- 4 숙제를 하고 게임을 했어요.
- 5 손을 씻고 드세요.
- 6 비가 오고 바람도 불어요.

■ 비교

-아서/어서

둘 다 동작을 이을 수 있지만, -아서는 앞 동작이 뒤 동작의 전제가 되거나 밀접하게 이어짐을 나타냅니다. -고는 단순히 차례대로 일어났음을 전합니다. -아서는 두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지만 -고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.

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봤어요. (친구를 만난 뒤 영화를 봤다) /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. (친구를 만나 함께 영화를 봤다)

하고, 와/과

-고는 절을 잇고, 이것들은 명사를 잇습니다. 둘을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십시오.

빵을 사고 집에 갔어요. (빵을 산 뒤 집에 갔다) / 빵하고 우유를 샀어요. (빵과 우유를 샀다)

-(으)면서

-고는 동작을 차례로 늘어놓고, -(으)면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

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. (먹은 다음 봤다) /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. (먹으면서 봤다)

■ 주의

- × 빵이고 우유를 샀어요.
- 빵하고 우유를 샀어요.
- 고는 한 동작 안에서 두 명사를 이을 수 없습니다. 하고, 와/과, (이)랑을 쓰십시오.
- × 어제 밥을 먹었고 잤어요.
- 어제 밥을 먹고 잤어요.
- 자연스러운 순서를 나타낼 때는 마지막 동사에만 시제를 붙입니다. 둘 다 표시하면 두 사건이 무관하게 들립니다.
- × 배가 고파고 밥을 먹었어요.
-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.
- 고는 두 사실을 나란히 제시할 뿐 원인을 나타내지 못합니다.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라면 -아서/어서를 써야 합니다.